

삼성전자 내던지는 외국인...역대 최장 26일 연속 순매도

ASML발 쇼크에 5만 9500원으로 장마감 '5만 전자' 하락 외국인 2730억원어치 팔아치워...26일 동안 11조원 매도

국민주식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무려 26거래일 연속 팔아치우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로 '10만 전자'를 넘보던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적 부진 사고와 맞물려 '반성전자'라는 말도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외국인들이 3000억원 가량 매도하면서, 2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46% 하락한 5만 9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이틀만에 '6만전자'에서도

떨어지게 됐다.

외국인들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 2730억원을 순매도, 삼성전자를 외국인 순매도 종목 1위에 올리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이로써 외국인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이날까지 26거래일 연속 순매도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 연속 순매도 최장 기록은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로,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물가가 급등했던 때다.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진 26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1조13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7만2500원에서 5만9500원으로 17.93% 하락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55.98%에서 53.14%로 2.84%포인트 낮아졌다.

이날 삼성전자 순매도세와 주가 하락은 전날 밤 공개된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기업 'ASML'의 부진한 3분기 실적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동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인공지능(AI) 칩 수출의 제한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연속 순매도 기록이 거시

경제 환경보다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특히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월 12일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를 전망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촉발한 반도체주 조정 이후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주는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어 모음이지만,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밸류체인에서 소외되면서 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도.

또 지난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켰고, 올 4분기 실적 전망마저 하향 조정되면서, 투심 회복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의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지난 8월 14조3000억원대에서 최근

12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의 이유가 HBM 공급 지연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 D램 가격 하락, 범용 메모리 수요 둔화 등까지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전망까지 어둡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6만원대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게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 22일 이후 33거래일 중 31거래일 동안 매수 우위를 보이는 등 저가 매수세로 주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식 3130억원을 순매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28일 '갤럭시 북5 Pro 360' 국내 출시 삼성전자는 오는 28일 '갤럭시 북5 Pro 360' 국내 출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북5 Pro 360은 삼성닷컴에서 단독 판매하며, 출시 17일부터 27일까지 출시 알림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품은 40.6cm(16형) 단일 크기로,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242만 6000원, 257만 6000원 두 개 모델로 출시된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 시민단체들 "GGM, 파업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의 파업 수순에 대해 "파업보다 상생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지역 5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은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GGM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캐스퍼 EV 수출을 눈앞에 둔 지금, GGM이 지

속 가능하고 건설적인 성장을 위해 노사 모두가 상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GGM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며 노사 양측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기반으로 성숙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협정서 GGM이 출범할 수 있었던 사회

적 합의의 근간"이라며 "노조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함께 협정서 정신을 존중하고,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며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끝으로 "호남은 매년 국가균형발전에서 배제돼 왔으나 GGM은 시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줬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협력의 새 길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 위원회 회의...현안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하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정용기 전남대 교수와 정관호 조선훈 대표, 분야별 전문가와 노란우산 가입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란우산 주요 현안과 발전방안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특히 위원회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자 등록 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이다. 재적가입자 176만명, 부금 27조원을 달성하였으며, 광주 4만6000명, 전남 5만3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이용하고 있다.

정용기·정관호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묵은 마련과 필요 시 대출에 대한 지원책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신보, 약산도서 '금융버스 가드림' 행사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과 함께 완도군 약산면 인근 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버스 가드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남신보는 도서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위해 광주은행,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보증상담 뿐만 아니라, 대출, 재무상담 등을 동시에 제공했다.

또 전남신보 신의준 의원을 일일 명예지점장으

로 위촉하고 지금 상담을 비롯하여 완도군 소상공인지원팀, 지역 소상공인단체 등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논의를 위한 민생소통 간담회도 가졌다.

신의준 의원은 "일일 명예지점장 역할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필요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근 이사장은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재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섬 지역 소상공인까지도 보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버스 가드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박병철 회장 재선임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1대 회장에 박병철(사진) (주)동림에이스 대표가 16일 재선임됐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이날 웨딩그룹 위더스광주에서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박병철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 재선임을 결정했다.

박병철 회장은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구성되는 제11대 집행부와

함께 회원의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장 선출에 이어 감사에 양동규 (주)에겐디자인 대표를 선출하고 중앙회 대의원과 운영위원 등 임원진 구성은 박병철 당선인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 전남 직류산업 자유특구 워크숍

(재)녹색에너지연구원원이 지난 15일까지 이틀간 나주에서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남도, 나주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함께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중전압 직류배전(MVDC, 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실증사업 및 전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특구 사업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인성 녹색연구원 팀장이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내,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특구 실증 관리 및 법률 자문', 김서곤 법무법인 로백스 센터장이 '해외 리스크 차단 위한 단계별 보안·법률 지원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전

남도 에너지정책 안내', 김삼만 에너지밸리전략기획팀장이 '시뮬레이션 및 HILS 지원 사업 설명'을 맡아 설명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미래 에너지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며, 재생에너지는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강조하고, "전남은 지난 4월 세계 1위 터빈 기업 베스타스, 글로벌 통합물류사 머스크와 투자협약을 맺고 목포신항, 화원산단을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가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기업 6곳, 실리콘밸리서 투자자 찾는다

11월 19~21일 'PNP 서밋' 참가

전남지역 6개 중소기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 세계 투자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성장 발판을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됐다.

전남도는 16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투자유치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릴 'PNP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할 6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성장 가능성, 해외 진출 준비상태, 기업 차별성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성장 발판을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됐다.

이날 대회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글로벌 으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도의 '글로벌 으뜸기업 55 프로젝트'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전남도는 '...55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역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했다.

'...55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55개 기업을 글로벌 으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이들 기업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PNP) 주도로 열리는 'PNP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하게 된다.

PNP 실리콘밸리 서밋은 PNP 파트너 기업, 글로벌 투자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장소로, 참가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갖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글로벌 진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펀딩사업, 금융 지원 등 실용성 있는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0.36 (-23.09)
↓ 코스닥	765.79 (-8.02)
↓ 금리(국고채 3년)	2.880 (-0.026)
↑ 환율(USD)	1363.65 (+2.35)